東大時報

發行人 兼編輯 印刷 白性郁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2) 1685 1686 6901

(週刊)

月定購料 貳百圓 一部定價 五拾圓

今週一言

人間을 가르치는 동안에 배우는 법이다

—〈세네카〉—

30日 惜別의 歡送式

金祐石 金龍培 崔鳳守 黃義敦 趙殷澤 李庚洙 鄭文基 金亨培 金晶燮敎授等

벗나는 功績 남기고 離任

停年敎授 아홉분

(寫眞 右上으로부터 金龍培 崔鳳守 黃義敦 趙殷澤 左上으로부터 金祐石 李庚洙 鄭文基 金亨培 金晶燮敎授)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十五조에 의하여 六〇세가 넘은 본교분교 대학장을 비롯한 아홉분의 교수가후진 에 의하여 본교 교수에 三十일 오후 三시 교수회관에서 환송 후진 양성에 半生 바친 정년교수들을 위하여 빛나는공적을 남기시고 지난 九월三〇일 아 쉬운 송별을 받으며 이임하였다

이번에 퇴직하게 된 七개원 九名의 본교 교수는 四五년 동안 林學 강의를 담당해 온 二七九년 본교 교수에 申 李庚洙농림대학장을 비롯한 철학과의 金龍培 취임하여 계속 十五년 간 불교학을 담당, 강사학과의 黃義敦、영문과의 崔鳳守、수학과의 송광재 의해온 金祐石 불교대학장과 四二八七년 본교 교수에 취임 계속 培、임학과의 金亨培、金晶燮、

農林大순으로 三二六명

▲불교대▲九명 ▲법정대▲一一八명 ▲농림대▲一一명 ▲석사학위 ▲哲學科▲安乘準 ▲英文科▲李孝英 ▲化學科▲金復鄕 ▲經濟學科▲盧永均 ▲法學科▲柱信、韓昌愚、李仁洙 ▲金林學科▲李恒敏

景光 파티 退任敎授 停年 · 사진

碩士八名 學士三二六名

30日、追加卒業式擧行

四二九三년도 본교추가 졸업식및 九四년도 대학원 석사학위수여식이 三十일 오후 二시 제三十三강의실에서 성대히 거행 되었다. 趙부총장、崔대학원장 비롯하여 각대학장 그리고 내외귀빈 다수와 학교 관계자들의 졸업생이 모인 가운데 申 李庚洙농림대학장을 비롯한 교수에 계속 十五년 무처장 사회로 열린 이 날 졸업식은 산귀의 국민의례에 이어 혁명공약 낭독이 있은 다음 趙明基부총장으로부터 佛敎大、文理大、法政大 졸업증서를 수여 大學別 졸업생 수와 석사학위 수여자 및 논문제목은 다음과 같다.

▼졸업생▲

文學科▲哲學科▲金復鄕▲李孝英▲英文科▲經濟學科▲盧永均▲法學科▲柱信、韓昌愚、李仁洙▲金林學科▲李恒敏

珠算競技大會 了

第二回全國男女中高 筏橋商高、文莫女中에 團體賞

본교 법정대학 상학회주관 문교부·상공부·재무부·시내 각 은행·신문사및 본사 후원으로 第二回全國男女中高等學校 珠算競技大會가 지난 二十六日 전국 四十一個校 二百名의 選手들이 參加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團體賞엔 筏橋商高(高等部)와 서울文英女中(中等部)이 각각 一位를 차지했으며 個人得點에선 박 서원(筏橋商高) 君과 정인숙(文英女中) 양이 각각 一等의 영광을 획득하였다.

▲團體賞▲◇一位 筏橋商高(三分五초)◇二位 서울女商高(三分十초)◇三位 德壽商高(三分二五초)

▲個人得點▲◇一等 박서원(筏橋商高)◇二等 김용인(清州商高)◇三等 정난수(釜山商高)

▲學校對抗리—레▲◇一位 筏橋商高(三分五초)◇二位 서울女商高(三分十초)◇三位 德壽商高(三分二五초)

▲個人得點▲◇一等 박서원(筏橋商高)◇二等 김용인(清州商高)◇三等 김신백(筏橋商高)◇四等 김용인(清州商高)◇五等 손병석(密陽實業高)

▲綜合算▲◇一等 박서원(筏橋商高)◇二等 김용인(清州商高)◇三等 정난수(釜山商高)

▲團體賞▲◇一位 서울女英女中◇二位 大田新興中◇三位 筏橋中◇四位 光州東成中◇五位 密陽實業高

▲學校對抗리—레▲◇一位 筏橋商高(三分五초)◇二等 서울女商高(三分十초)◇三位 德壽商高(三分二五초)

▲個人得點▲◇一等 박서원(筏橋商高)◇二等 김용인(清州商高)◇三等 김신백(筏橋商高)◇四等 김용인(清州商高)◇五等 손병석(密陽實業高)

▲綜合算▲◇一等 김용인(清州商高)◇二等 박서원(筏橋商高)◇三等 김용인(釜山商高)

▲團體賞▲◇一位 서울女英女中◇二位 大田新興中◇三位 筏橋中◇四位 光州東成中◇五位 密陽實業高

▲學校對抗리—레▲◇一位 筏橋商高(三分五초)◇二等 서울女商高(三分十초)◇三位 德壽商高(三分二五초)

▲個人得點▲◇一等 박서원(筏橋商高)◇二等 김용인(清州商高)◇三等 김신백(筏橋商高)◇四等 김용인(清州商高)◇五等 손병석(密陽實業高)

▲綜合算▲◇一等 김용인(清州商高)◇二等 박서원(筏橋商高)◇三等 정난수

東園先生詩壇의 由來

李丙疇

東園은 李王朝 詩의 요람
李東岳은 神童詩人
〈刻字는 240年前에 玄孫이〉

(서울)기슭에 있는 한복판 南山 東大境內에 있는 先人들의 자취를 더듬을 호젓한 자리 잡은 「東園詩壇」의 六字, 지금 禪寺의 本堂, 圖書館으로 쓰이던 倭式建物, 木冥에로 조금만 오르면 그 뜻된 언덕마 위에 새겨진 「東岳先生 同門」 그 래한 기둥의 「大 溪寺」 道場으로 쓰는 曹 武部」 의 이 名匠 (서울)의 李齋 (一四七八—一五〇四)과, 容 五三四) 이 精氣를 모두 이곳

魂한 獨孤 찾다 島를 着定

「유우진 오닐」劇作公演에 즈음하여

三 根 李

英國의 劇作家「버나아드·쇼오」는「유우진·오닐」을 가리켜〃안개속을 헤매는「캐리반」같은 作家〃라고했다。이러한 비유가 결코 좋은 意圖에서 나온것은 아니다。沙翁의 마지막 作品으로 알려져있는「颱風」에 나오는 半人半獸인 怪物캐리반같은 劇作家 라는말이다。自己의 元生態가 뭣인지 모르는 이 半人半獸의怪物은 안타까이 안개속을 헤치며 孤島를 彷徨한다。

(오닐의「카디프를向하여東쪽으로」實習公演의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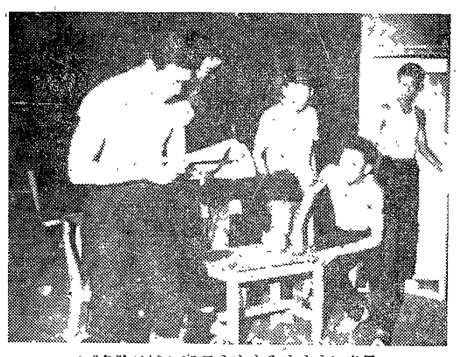
「오닐」을 캐리반이라고 하는 「쇼오」의말은 그대로 「오닐」의作品속에 登場하는 人物들에게도 該當될듯지모른다。그의「皇帝존즈」에 나오는 黑人존즈도 캐리반 같은 存在다。

에맥 追跡人들의 눈을 避하며 密林속을 돌아다닌다。그러나 密林은 그를 찾던 존즈는도 다시 出口에 入口에 흘려나와 죽어버린다。「닐」이 진은 「양크」의 主人公 원숭이」의 境遇도 마찬가지다。양크의 活動 舞臺가 섬이 아니요、 또한 密林이 아닐지몰라도 社會各層을 彷徨하며 自己가 살수있는、 참말로 뿌리를 박고 다시랄하면 自己의 所屬地를 찾는 分明「쇼오」가말 슬은 캐리반의 再現이 하는 오닐이 一生동안 에 쓴 四十七個의 劇 中人物들의 大部分이 自己네들의 所屬地를 찾 캐리반 같은 存在갑다。

希臘劇의 形態、 후로 이도의 心理學、假面、 表現主義、象徵主義、 는「제임스·조이스」가 쓴「意識의흐름」 등 世上에 알려진 方法과 思想을 廣範圍한 腦頭 의 劇을 通한 「오닐」의 世上에 念頭에 내놓은 財政上의 成功도 없었다。 名聲도 作品속의 人物들은 그의 「所屬地」를말하며 自己의 찾고저 하는 慾望 切한 또한 뿐이었다。

「유우진·오닐」은 一八八八年 十月 十六日 이것이 一九二〇年 代 美國劇界에서 「콘테·크리스토伯爵」 의 公演으로 有名해진 愛蘭出身의 俳優 「제임스·오닐」의 아들로 태어났다。 當時의 「유우진·오닐」은 一八八〇年 代 美國劇界에서 「제임스·조이스」가 「意識의흐름」 등 世上에 알려진 方法과 思想을 廣範圍한 腦頭 의 劇을 通한 「오닐」의 世上에 念頭에 내놓은 財政上의 成功도 없었다。 名聲도 作品속의 人物들은 그의 「所屬地」를말하며 自己의 찾고저 하는 오닐이 一生동안 에 쓴 四十七個의 劇 中人物들의 大部分이 自己네들의 所屬地를 찾 캐리반 같은 存在갑다。

希臘劇의 形態、 후로 이도의 心理學、假面、 表現主義、象徵主義、 는「제임스·조이스」가 쓴「意識의흐름」 등 世上에 알려진 方法과 思想을 廣範圍한 腦頭 의 劇을 通한 「오닐」의 世上에 念頭에 내놓은 財政上의 成功도 없었다。 名聲도 作品속의 人物들은 그의 「所屬地」를말하며 自己의 찾고저 하는 오닐이 一生동안 에 쓴 四十七個의 劇 中人物들의 大部分이 自己네들의 所屬地를 찾 캐리반 같은 存在갑다。



(「危險地域」實習에앞서책읽기하는光景)

實習公演을 마치고

李 基 夏

演劇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 본 일도 없고 내가 따라가 전혀 상상이다。 구경꺼리란 나의 視 觀 속에는 없는 것이다。 어떤 興味 한 것이 아니다。 나의 生活과 전혀 關心을 끌어 어떤 것이 나의 興 趣 있는 것이 아니다。 面에서 이러한 生活을 하는 것이 아니다。 演劇은 생각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吟味해 보면、 演劇의 現實이란 것은 一端을 보는 것이 아니다。 演劇을 보는 것이 反省하는 것이 아니다。 演劇을 한다는 것은 筋肉神經痛이 다른 것이 아니다。 演劇을 한다는 것은 人間과 人生을 探究하는 努力이 우리들 의 人生에 안된다。 人間의 正當 한 要求이다。 人生에 대한 缺如하고 있는 眼目을 이미 벗어나는 것이다。 現實이거나、 적어도 이 九月 十六日 上演을 보면、 演劇의 現實이란 것은 人間의 態度를 存在를 探究하는 努力이 우리들 의 人間과 人生에 대한 眼目을 벗어버린 것이다。

本 演劇科에서는 幕物의「유진·오닐」의 一 두개를 實習公演 作品으로 擇하여 十六日부터 一주 上演을 九月 十四回의 부서버려 退學을 麥酒병 窓門을 統領이된 「우진·오닐」의 後 大 統 作品속의 人物들의 自 模 樣 이 世上에서 己의 「所屬地」를말하며 切한 찾고저 慾望 뿐이었다。 懸

形態、 후로 假面、 心理學、 象徵主義、 表現主義、 形態、 후로 假面、 心理學、 象徵主義、 表現主義、 形態、 후로 假面、 心理學、 象徵主義、 表現主義、

現代의 軍備縮小 (上)

朴富燁

◇……오늘 國際情勢의 焦點은 校武器管理法과 軍備縮小……◇
◇……에 따르는 諸般問題에 集中되고 있다。이 二大問題……◇
◇……를 둘러싸고 東西 兩大陣營은 對決하고 있다。여……◇
◇……기서 軍備縮小의 問題에 對하여 筆者의 關心을 간……◇
◇……단히 論하기로 한다。

一、序論

今日 美、蘇를 兩極點으로 對立하고 있는 民主·共産 兩大勢力의 渦中에서 深刻한 冷戰의 焦點이 되고 있는 軍備問題는 世界平和와 全人類의 幸福이라는 目的의 論的立場에서 正義와 平和가 取扱될 것인 國際問題는 冷戰으로 趨移를 程度의 熱戰에 直接的이고 보니 軍備問題를 現代 軍備縮小의 關聯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하겠다。

國際社會에 있어서 國際平和는 國家主權의 制限으로서 勿論 保障될수 없음은 勿論 國家의 本質上 今日에 實敗를 우리가 經驗해 왔던 삶 속에서 自信을 이르기 더욱이 現代에 있어 互間의 相反되고 兩立하고 强力한 衝突시킬 恐怖를 招來하는 爭의 要因이 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參與하여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 것이다。

軍備의 制限만으로는 完全한 國際平和와 保障 策을 마련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勿論 國力의 要素로서 軍備의 重要性은 强力한 것이며 國際平和를 爲한 外交의 重要性도 또한 偉大한 것이다。

이와같이 軍備縮小問題는 現世代가 當面한 緊急한 課題이며 國際外交의 秩序를 確立하기 爲한 基礎가 될것이라는 重要性은 큰 것이다。

二、軍備縮少의 沿革

軍備縮少는 軍備競爭을 終息시킬 目的으로 一定한 또는 全部의 減縮 乃至 制限하는 것이다。

軍備縮少에는 全般的 및 局部的 軍縮과 量的 및 質的 軍縮間의 두 가지의 區別이 있을수 있는 一般的 軍縮이란 諸國家가 一般的으로 參與할수 있는 것으로 例로서 一九二二年 에 依해 主要海岸國에 調印된 海軍軍備의 制限에 對한 「워싱톤條約」이나 諸國家에서 主張했던 一九三二年 「世界軍備縮少會議」를 張했던 一九三二年 「世界軍備縮少會議」를 局部的 軍縮은 限定된 國家만이 參加할수 있다。

八一七年 美國과 카나다間의 Rush-Boget 協定이 一樣相이라고 하겠다。

是는 軍縮의 類型의 大部分이 全面的 減縮을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亦 全般的 世界軍縮會議에서 一九三二年의 世界軍縮會議에서 侵略的 武器로서 勢力했던 原子武器等과 같이 不法化시키려고 唱歌하던 特別한 類型의 軍備를 減縮하는 方向으로 施行하는 것을 軍縮을 말한다。

一八一六年 露西亞의 「짜-르-」는 英國政府에 對하여 同等한 減縮案을 提起하였고 英國도 露西亞 軍縮案에 對하여 同意하였다。

一八九九年에 第一回 露西亞 「짜-르-」의 反議案을 適用할것을 默示的으로 一九二二年의 워싱톤 會議에서 九三二年의 世界軍縮會議에서 侵略的 武器로서 勢力했던 原子武器等과 같이 不法化시키려고 唱歌하던 特別한 類型의 軍備를 減縮하는 方向으로 施行하는 것을 말한다。

露西亞의 「짜-르-」는 英國政府에 對하여 同等한 減縮案을 提起하였고 英國도 露西亞 軍縮案에 對하여 同意하였다。

一八九七年의 第二回 「헤그」平和會議에서 第二回 「헤그」平和會議에서 採擇한 決議案을 追認하였다。

諸國家가 一般的으로 參與할수 있는 것으로 例로서 一九二二年 에 依해 主要海岸國에 調印된 海軍軍備의 制限에 對한 「워싱톤條約」이나 諸國家에서 主張했던 一九三二年 「世界軍備縮少會議」를 局部的 軍縮은 限定된 國家만이 參加할수 있다。

八一七年 美國과 카나다間의 Rush-Boget 協定이 一樣相이라고 하는 것으로 亦 全面的 減縮을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亦 全般的 軍縮會議에서 一九三二年의 世界軍縮會議에서 侵略的 武器로서 勢力했던 原子武器等과 같이 不法化시키려고 唱歌하던 特別한 類型의 軍備를 減縮하는 方向으로 施行하는 것을 말한다。

一八一六年 露西亞의 「짜-르-」는 英國政府에 對하여 同等한 減縮案을 提起하였고 英國도 露西亞 軍縮案에 對하여 同意하였다。

一八九七年의 第二回 「헤그」平和會議에서 採擇한 決議案을 追認하였다。

一九二二年의 워싱톤 會議에서